

# 사회인식론으로서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논리와 방법

## The Logic and Method of Post-structuralist Philosophy as a Social Theory of Knowledge

김봉석 (유아교육과)

Bongseok K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y Words : 사회인식론(social theory of knowledge), 구조주의(structuralism),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담론(discourse), 권력-지식(power-knowledge)

ABSTRACT : This study has an object to analyze the logic and method of Post-structuralist philosophy as a social theory of knowledge by contrast with Structuralism in human/social sciences. In this analysis, I intended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e Post-structuralist methodology on social philosophy from social theory of knowledge.

As a methodology of human and social sciences, the Post-structuralism focuses on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structure and individual as a social agent. And it investigates the historical dimension and moment in which subjectivity as a social identity has been produced and constructed by discursive practices. Our subjectivities are socially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social practices mediated through many discursive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The central topic of the Post-structuralist methodology is the 'power-knowledge' linkage. M. Foucault studied the power/knowledge mechanism with the two methods of archaeology and genealogy of knowledge. According to Foucault, this power-knowledge or bio-power mechanism makes up historically concrete human experience, a field of knowledge, and a disciplinary code of social relations.

In conclusion, the logic and method of Post-structuralist inquiry criticized the other side of the rationality of human, so called 'instrumental reason' in modern society. And It is formulated a new 'critical theory' as a self-critique of reason in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 1. 서론: 사회인식론으로서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문제들

사회현상에 대하여든 자연현상에 대하여든 학적(學的) 탐구의 과정과 결과는 지식으로서 귀결된다. 지식의 형성 내지 구성은 인식주체의 사변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인식의 주체에게는 사변을 위한 '내용'과 '형식'이 요구된다. 사변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용과 형식을 방법론(methodology) 또는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한다. 방법론과 패러다임은 인식의 주체 곧 학적 탐구의 주체가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도구이자 관점이다. 통상적으로 자연현상은 실증주의 패러다임으로 대표되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이에 반하여, 사회현상을 어떠한 방법론 또는 패러다임으로써 들여다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과학 및 사회과학의 역사에서 지난한 문제로서 부각되어왔다. 특히 자연과학을 범례로 삼았던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근대사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태동하고 정립된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인간과학 및 사회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엄밀성을 모방·차용하면서도,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사회와 인간행위의 불규칙성 내지 불규정성을 포착하는 유연한 방법론과 패러다임을 요구하였다. 한 마디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현상의 피결정성과 자율성, 정태성(靜態性)과 동태성(動態性)을 동시에 심층적으로 포착하는 인식론적 '양날의 검'이 필요한 것이다.

데카르트로부터 비롯된 근대철학 이래 철학의 중심논제는 본질적으로 항상 인식론이었다. 그리고 근대사회의 정립 이래 인식론의 틀과 방법으로써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회인식론(social theory of knowledge)이라는 철학적·사회학적 주제를 형성하였다. 만하임(K. Mannheim)의 지식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은 사회인식론의 대표적 유형이다.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은 지식이라는 사회적 대상의 피결정성과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적 노력이다. 사회인식론이 간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현상의 계기와 과정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다. 따라서 사회인식론은 필연적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현상의 구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조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구조의 속성에 대하여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달리 말해서, 구조 자체를 역사적인 산물로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탈역사적인 실체로 간주할 것인가에 따라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은 달라진다.

사회인식론에서는 사회현상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socially constructed)’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가 전혀 선험적이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재로서의 사회가 우리의 경험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 곧 선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현상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사회현상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행위(engagement)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는 참여행위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참여자들의 행위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행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행위를 제한하고 조형하는 틀 내지 구조로서 작용한다. 즉, 인간의 행위는 항상 사회라는 틀 속에서, 사회적 관계라는 구조 내에서 작동한다. 이것은 사회세계와 행위자의 관계성이 어느 일방에 의한 선험적 절대성으로 파악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논쟁과 대립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상학(phenomenology)과 구조주의(structuralism)의, 사회적 실재성에 관한 논쟁이다.

구조주의는 20세기 중반에 배태된 인문·사회과학 방법론이다. 구조주의는 애초 사회현상의 실재성을 논구함에 있어서 현상학의 안티테제로서 등장하였다. 현상학은 독일의 철학자 후설(E. Husserl)이 만든 현대철학의 사조(思潮)이다. 후설은 당대의 학문세계에서 널리 퍼져있던 자연과학의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든 사회현상에 대해서든 과학적이고 엄밀한 인식의 과정을 정립한다. 그는 인식주체의 명징한 선험적 의식에 입각한 ‘현상에 관한 과학적 분석’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철학에 현상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요컨대, 현상학은 엄밀한 인식론적 방법론이자 인식과 관념의 철학으로서, 인식주체의 선험적 우선성을 전제로 하며, 대상세계가 인식주체의 의미 구성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관념론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현상학은 객관에 대하여 주관의 우위를 주장하는 입론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구조주의에서 볼 때, 인식주체가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는 그 이전에 인식주체로부터 독립해 있는 메타세계의 언어 및 기표의 체계에 의해서 생성·산출된다. 즉, 인식주체의 의미 구성 행위는 대상세계의 실재성과 구조성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조주의의 핵심 논지이다. 본디 구조주의는 단일한 이론체계로서 정립된 방법론이 아니다. 구조주의는 소쉬르(F. Saussure)의 구조주의 언어학,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의 구조주의 인류학, 피아제(J. Piaget)의 구조주의 발달심리학 등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공통성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등장하였다. 이들 이론체계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공통성은 미시적 개체 또는 개별 현상의 발생과 변이를 아우르고 규정하는 상위의 거시적 구조의 존재에 있다. 한 마디로, 구조는 현상을 결정하는 틀이요 규칙이다. 이 점에서 구조주의는 주관에 대하여 객관의 우위를 주장하는 입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인식론상의 주체와 구조의 단순대립항에 있는 것이 아니

다. 주체는 구조에 의해 규정되고 조형된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참이다. 한편, 구조 또한 주체에 의해 변개(變改)되고 형성된다.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이 역시 참이다. 문제는 사회학적 계기와 역사학적 계기 모두에서 주체와 구조의 상호작용론적·교호적 상관성을 포착하는 ‘총체적’ 시각의 사회인식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20세기의 후반부에 인문·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서 등장한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철학은 바로 이러한 사회인식론의 문제들을 방법론적 체계로서 발전시킨 이론이다. 말하자면, 후기구조주의 철학은 사회현상의 피결정성과 자율성, 정태성과 동태성, 공시성(共時性)과 통시성(通時性)을 동시에 포착하려는 사회인식론의 한 흐름이다.

사회인식론으로서 후기구조주의는 그 뿌리를 구조주의에 두고 있다. 즉,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 철학의 주요 논제와 문제들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방법론적으로 구조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후기구조주의가 구조주의를 극복·해소하는 과정은, 건실한 인간과학·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응당 내재되어야 할 총체적인 그리고 지적으로 정당한 인식론적 내용과 형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글은 후기구조주의 철학이 인간과학 및 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서 담지하고 있는 탐구 논리와 방법을 사회인식론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후기구조주의의 방법론으로써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주관과 객관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연구자가 밝히려는 것은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사회인식론적·방법론적 정합성이다.

## 2.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논리: 구조에서 담론으로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후기구조주의 철학은 20세기 후반부에 구조주의 철학의 문제점을 계승하고 극복해 나간 일련의 철학적 사조를 말한다. 그런데 후기구조주의 철학은, 구조주의가 그러한 것처럼, 어떠한 단일한 이론체계로서의 균질성을 지니고서 논구되지 않는다. 후기구조주의 철학은 현상학과 구조주의에서 노정된 주체와 구조의 이항대립의 양상을 해소·극복하려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방법론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김옥동(1991: 13)에 따르면, 후기구조주의에는 일군의 현대 프랑스 철학사상들<sup>1)</sup>과 이를 원용한 현대 미국의 포스트모던 문예·사회이론<sup>2)</sup>이 망라되어 있다. 가히 20세기 후반에 형성된 거의 모든 인문·사회과학 이론들이 후기구조주의라는 이름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처럼 지난 세기말의 서구의 문예·사회이론을 통틀어 후기구조주의로 범주화하는 것은, 서론에서 제기한 사회인식론의 방법론으로서 후기구조주의가 상징하는 철학적 문제의식 곧 주체와 대상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사회인식론적 문제의식을 다소간 흐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구조주의가 구조주의의 인식론적 문제점을 어떻게 계승하고 해소하는가를 준거로 후기구조주의의 범주를 좀더 분명하게 명료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우(1999: 38-41)는 역사·사회이론으로서의 후기구조주의와 사회·문예이론으로서의 탈구조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후기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내지

1) 예컨대, 데리다의 해체주의(deconstruction) 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라캉의 정신분석이론, 사회의 변화와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의 구조적 계기와 국면을 밝혀내려는 푸코의 역사사회이론, 20세기 후반의 정보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바르트의 문학·문화이론,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페미니즘 이론,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접목하려는 알튀세르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 들뢰즈와 가타리의 안티오이디푸스 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예컨대, 데리다의 해체이론을 받아들여 해체비평이론을 발전시킨 미국 예일대학의 문학이론가 그룹인 예일학파의 문학비평이론,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학자인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이론이 이에 해당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가르는 기준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개념틀이다. 말하자면, 후기구조주의는 합리성을 개념틀로 하는 이론체계이고,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비합리성을 개념틀로 삼는 이론체계이다.

이정우(1999: 38-41)에 따르면, 구조주의는 장(場) 개념에 입각해서 세계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현상의 시간성보다는 공간성을 중시한다.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려 한다. 예컨대, 구조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행위자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부르디외(P. Bourdieu)의 사회학이라든가, 구조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의 단절을 강조하는 푸코(M. Foucault)의 역사사회학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후기구조주의 이론이다. 즉,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권력, 우연성, 불연속성, 시간성, 주체성 같은 개념으로써 구조의 개념을 역동화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반해,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조주의를 부정하면서 시간성, 우연성, 상대성, 혼돈성(chaos), 신체와 욕망 등을 사유하는 데리다(J. Derrida), 리오타르(J. Lyotard), 보드리야르(J. Baudrillard) 등의 반합리주의적(反合理主義的) 사유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글자 그대로 구조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서, 구조주의의 합리주의적 입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반구조적(反構造的)인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요컨대,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성의 합리성을 긍정하면서 그 한계를 밝혀내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반면에,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우가 후기구조주의와 일군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을 철저히 구분하려고 한 것과는 별개로, 구조주의 자체도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갈래를 갖는 이론체계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조주의 자체의 방법론적 다기성(多岐性)이 후기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성을 통관하는 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구조주의는 인간 행위와 그 산물들을 ‘구조’라고 하는 개념틀로써 설명하는 사유방식이다. 즉, 인간의 행위 속에 나타나는 규칙성과 그러한 규칙성을 담보하고 발현시키는 사회적 토대를 구조라고 하는 개념틀로써 묶어낸 철학적 방법론이 구조주의이다. 도스(F. Dosse, 1998: 15)에 따르면, 구조주의는 과학적 구조주의, 기호학적 구조주의, 역사적·인식론적 구조주의로 나뉜다. 첫 번째인 과학적 구조주의에는 인류학의 레비-스트로스, 기호학의 그레마스(A. Greimas), 정신분석학의 라캉(J. Lacan)이 해당된다. 두 번째인 기호학적 구조주의는 과학적 구조주의와 비슷하지만 기호의 표상성에 대하여 더 유연하고 다양한 입장을 취하는 관점으로서, 롤랑 바르트(R. Barthes), 미셸 세르(M. Serres)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인 역사적·인식론적 구조주의에는 알튀세(L. Althusser), 부르디외, 푸코, 데리다 등이 해당된다. 비록 도스는 그것을 구조주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세 번째의 구조주의의 유형인 역사적·인식론적 구조주의가 바로 후기구조주의이다.

도스의 분류에 의거할 때, 구조주의는 첫 번째로, 언어와 사회체계(친족체계)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두 번째로, 기호와 텍스트의 장(場)을 대상으로 심화되고, 세 번째로, 사회현상에 대한 역사적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한 마디로, 구조주의는 그 이론적 심화와 확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기구조주의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가 이론적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를 구별하자면, 구조의 탈역사성 혹은 공시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구조주의라면,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의 역사성과 개방성을 내세우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 구조주의는 현상학의 방법론적 관념론에 반대하여 등장한 방법론적 실재론의 철학이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구조주의는 현상학에서 내세웠던 인식주체의 방법론적 지위와 선행성을 폐기하고 구조라고 하는 비역사적·공시적 관계들을 사회현상 해석의 제일 원리로 삼는다. 구조주의에서 구조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들어가서 현상 배후의 물자체(物自體) 즉 제 사상(事象)들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본질을 인식하는데 핵심기제로서 작용한다. 구조주의가 방법론으로서 갖는 가장 중요한 위상은, 현상을 전체와 부분간의 상호의존 및 상호작용 관계에 의거하여 살펴봄으로써, 현상의 배후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구조를 밝혀내고, 그 구조에 의거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해석한다는 사실에 있다.

구조주의는 방법론상으로 구조의 공시성과 및 의미의 자기충족성을 인식론적 특성으로 내세운다. 구조주의에서 공시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 따른 것이다. 소쉬르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언어의 정태적 상태를 그 내적인 관계에 의거하여 파악함으로써 언어 분석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언어의 의미는 거시적인 언어체계 내의 공시적인 기호배열 관계 즉 구조에 의하여 규정된다. 기표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기호의 의미는 기표간의 차이(difference)에 의하여 규정된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에서 구조의 공시성은 구조의 자기충족성으로 심화된다. 구조는 자기충족적이며 외생적인 요소들과 관련지을 필요가 없다. 레비-스트로스는 소쉬르가 제시한 언어체계에서의 공시적 기호배열 관계를 친족과 신화의 분석에 적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근원에서 규정하는 ‘사회학적’ 구조주의를 정립시켰다. 이러한 구조의 공시성과 자기충족성은 구조주의를 반역사주의적(反歷史主義的)·반인간주의적(反人間主義的)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한다. 구조주의는 시간성에 기초하여 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려는 역사주의적 시각을 비판한다. 연구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정태적 상태를 내적 관계로써 파악할 때 가능하다. 또한 현상의 발현과 전개에서 인식주체의 역할은 철저히 배제된다. 구조는 개인의 의식적·주관적 차원을 초월하여 자체의 자율기능으로써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통제한다. 의식이니 주체니 하는 것은 어떠한 내면적인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의해 생산된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식론적으로 구조주의는 가설-연역의 논리체계로 현상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실증주의의적 지식관에 반대되는 실재론적 지식관에서 서 있다. 즉, 구조주의는 지식의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강조하는 진리의 정합설(coherence theory of knowledge)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실재론적 지식관이라는 학문적 장점에 불구하고, 그 반역사주의적·반인간주의적 속성 때문에 사회구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은 문제삼지 못하는 ‘닫힌’ 연구틀이라는 한계점을 갖게 된다.

이 지점에서 구조의 역사적 변환 과정을 포착하는 방법론적 전환 내지는 확장으로서 후기구조주의가 등장한다. 후기구조주의는 모든 것을 시간상의 인과관계로 환원하는 역사주의와, 인식주체의 선행적 우선성으로 치환하는 인간주의의 함정을 피하면서, 구조의 변환과 주체의 형성이 교호적(交互的)으로 관여하는 양상과 국면을 역사·사회적으로 파헤친다. 후기구조주의의 역사·사회 분석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구조와 주체의 역동적인 상호규정관계이다. 구조는 주체에 의하여 ‘구조화(構造化)’되며, 주체는 구조에 의하여 ‘주체화(主體化)’된다. 여기서 구조와 주체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담론(discourse)이다. 구조화와 주체화의 과정은 담론적 실천행위(discursive practic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구조와 주체는 언술행위 곧 담론을 통하여 사회적 실체를 획득한다.

후기구조주의의 관점에서는 담론이 작동하는 모든 영역 — 기실 담론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 이 구조와 주체, 사회와 인간을 매개하고 형성한다. 이

를 가장 극명하게 밝혀주는 대표적인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는 바로 미셸 푸코이다. 푸코는 말과 사물, 지식과 권력, 자아와 신체와 섹슈얼리티의 역사적 형성 과정 및 그 기원을 추적하여 구조가 구조화되고, 주체가 주체화되는 과정과 방식을 밝혀준다(Dreyfus & Labinow, 1989). 요컨대, 푸코는 구조주의가 배제하고 있는 인식주체의 ‘경험적’ 지위와 구조의 ‘역사적’ 통시성을 복권시키고 있는 바, 이 지점에서 구조주의의 반인간주의적·반역사주의적 인식의 태도는 지양된다. 물론 이 때의 인식주체는 데카르트나 칸트 철학에서처럼 인식론적 기점(基點)으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행위의 담지자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뿐이다. 또한 이 때의 역사성 내지 시간성이란 사태와 현상을 시간적 인과율과 목적론으로 결박하는 역사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담론의 구성 과정에 작용하는 공간적 분절점(分節點)으로서의 시간일 뿐이다.

### 3.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방법: 담론에서 권력으로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철학의 핵심주제는 주체와 이성이다. 근대철학에서 이성적 주체의 사유와 인식행위는 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곧 지식을 존립시키는 근거요 토대였다. 푸코는 근대사회의 정립과 함께 자명하게 받아들여져 온 주체 내지는 이성의 초월적 기반을, 그것이 닳을 내리고 있는 사회적 언설과 지식 등의 제 담론들을 비판함으로써, 허물고 있다. 요컨대, 푸코는 근대철학의 초월적 이성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역사화’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회인식론으로서 후기구조주의는 첫째, 인식주체의 선형성의 근거였던 이성에 대한 비판, 둘째, 이성의 존재론적 지위의 근거였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 셋째, 이성과 세계와의 대응성을 전제로 성립되었던 인식작용의 근거로서 표상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인식론으로서 후기구조주의 철학이 함의하는 논리의 체계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조에서 담론으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초기의 언어학적 규칙의 체계에 집중하는 단일성에서 탈피하여, 언술행위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포착하려는 ‘열린’ 입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후기구조주의의 열린 방법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푸코의 이른바 지식의 ‘고고학(method of archeology)’과 ‘계보학(method of genealogy)’이다.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과 계보학에 의거하여, 구조 속에서 표현되고 형성되는 인간의 비물질적 속성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인간 형성에 작동하는 담론과 권력의 역사적 그물망이 구조의 본질임을 드러낸다.<sup>3)</sup>

지식의 고고학과 계보학은, 지식을 인식론적 범주와 양상으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철학의 방법과는 달리, 지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구조주의의 ‘요소항’과 ‘관계항’의 개념으로써 특정 국면에서의 지식의 본질적 구조를 밝혀내거나[*고고학적 방법*], 그와 같은 지식의 핵심적인 요소항과 관계항이 여하한 사회적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생성되고 전개·발전되었는지를 역사적 조망(眺望)틀로써 분석함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함의를 드러내는[*계보학적 방법*], 후기구조주의적 사회인식론의 연구방법이다. 첫 번째로, 지식의 고고학은 담론이 이루어지는 인식론적 공간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어떤 시대에 어떤 담론이 형성되고 변환되었을 때 그 밑바탕에서 작동하고 있는 언어적 구조의 기본요소인 인식소(episteme)를 드러내는 것이 고고학적 방법이다. 고고학은 텍스트와 텍스트가 맺는 관계, 텍스트와 텍스트 외적인 요소들이 맺는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정우, 1994, 19-20). 이 점에서 고고학은 현상의 심층구조를 밝혀내는데 주력하는 구조주의적 탐구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의 『광기의 역사』, 『말과 사물』, 『임상의학의 탄생』 등과 같은 저서가 이러한 고고학적 연구에 해당한다.

3) 푸코의 대표적인 저작인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는 바로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지식의 계보학은 지적 탐구의 대상이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예컨대, 진리성, 비진리성, 남성성, 여성성, 자연성, 민족성 등과 같이 어떠한 고정된 속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그럼으로써 일견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개념을 권력의지(will to power)에 연루시켜 그 안에 어떤 권력의지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계보학의 과제이다. 즉, 계보학은 지식이 어떠한 권력의지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특정 종류의 주체들을 대상화하고 생산해내는가를 다룬다. 고고학이 지식 자체의 인식론적 구조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면, 계보학은 권력과 지식의 상호관계를 탐구의 핵심으로 삼는다(Rabinow, 1991: 12-24). 이 점에서 계보학은 구조의 자명성을 문제 삼는 후기구조주의적 탐구방법의 전형(典型)이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등과 같은 저서가 이러한 계보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푸코는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에서, 이성이 그에 대립적으로 분화·분절된 비이성의 사유를 어떻게 광기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해나가는지를 역사적 지평 위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근대철학에서 인식과 사유의 기초로서 전제하는 이성이 결코 자명하지 않은 ‘구성적’ 실체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푸코의 작업은 ‘초월적 이성’의 존재인 인간을 사유와 행위의 중심에 두는 인간주의 내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언어·문화·사회구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구조의 담지자’로서 ‘역사화된’ 인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푸코에게 있어서 개인은 구체적인 생활세계 안에서 정신세계의 토대로서의 신체활동에 의해 근거지어지는 탈중심화된 주체이다. 그리고 담론은 이러한 주체를 구성해내는 주된 생산기체이다.

인간의 사고와 행위는 담론적 질서 안에서 그리고 담론적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체를 구성하는 담론적 실천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다른 아닌 앎(knowing) 또는 지식이다. 담론의 질서 안에서 생성되는 지식은 인간의 주체성과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담론으로서 지식이 주체를 구성하고 생산하는 기체가 되는 것은, 그것이 권력(power)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합법화되기 때문이다. 푸코의 시선에서 볼 때, 권력은 지식이 형성되고 행사되는 발생론적 장(場)이다. 주체의 형성에 작용하는 지식은 그 본질에 있어 선별과 배제의 강제력을 지니는 ‘권력-지식(power-knowledge)’이다. 권력과 및 앎 내지 지식은,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고 선도(先導)하면서 존립되는 바, 주체를 대상화하고 생산해내는 담론적 실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푸코가 논의하는 권력은, 우리가 권력이라는 용어를 대할 때 상식적으로 떠올리는 ‘정치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권력의 양태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반에 미시적으로 퍼져있는 위계적 사회관계 내에서의 일상적 행위의 ‘벡터(vector)’를 함의하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사회적 인간관계는 항상 그 관계의 위상차에 따라 차별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권력은 항상 일상적 실천 속에서의 위계적 벡터로서, 행위자의 행위 과정 전반에 걸쳐서 세밀하게 행사된다. 푸코는 이처럼 주체의 행위 과정에 행사되는 미시적 권력을 ‘생체-권력(bio-power)’이라고 부른다.

푸코는 생체권력을 권력이 행사되는 ‘관계의 그물’로서 이해한다. 즉,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은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강제(強制)-피강제(被強制)의 전략적 상황을 가리킨다. 푸코(1990: 92-93)에 따르면, “권력이란 우선 출현영역에 내재하며 하나의 조직된 전체를 구성하는 세력관계들의 다양성이고, 끊임없는 투쟁과 충돌을 거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강화하며 역전시키는 놀이이고, 그러한 세력관계들이 연쇄나 체계를 형성하게끔 서로에게서 찾아내는 뒷받침 또는 반대로 그것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괴리와 모순이며, 마지막으로 세력관계들로 하여금 효력을 발휘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의 기구들, 법의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헤게모니들을 통해 전반적 구상 또는 제도상의 결정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전략이다.”

요컨대, 푸코는 우리가 그동안 권력에 대하여 수행해왔던 학적 개념화가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거나 아니면 구조주의적 시각에 의거하고 있음으로써, 권력이 주체의 구성에 작용하는 ‘구조화된’ 구조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는 것을 간과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즉, 푸코의 후기 구조주의적 사고들에 있어서 권력이란 권력체도나 특정계급에 부여된 헤게모니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관계에 편재하여 행사되는 구조화된 전략이다. 구조화된 전략으로서의 권력은 억압이나 금지의 시스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략으로서의 권력은 특정한 정체성을 갖춘 주체를 생산해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힘’이다. 이것이 생체권력의 사회적 함의이다. 전략으로서의 생체권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권력작용의 대상에 대한 개별화된 지식이 반드시 요구된다. 즉, 생체권력은 지식과 연계·결합된 권력을 가리킨다. 주체를 효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대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과 지식이 연계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권력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며, 지식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려면 권력이 작용해야 한다. 한 마디로, 권력과 지식은 서로가 서로의 효과인 것이다.

푸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력 자체가 지식의 진리성(truthfulness)을 발현시키는 장(場)임을 밝히고 있다. 주체를 생산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권력은 진리담론을 생산하는 장(場) 내지 관계망으로서 작동한다. 푸코(1991: 27-28)에 따르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권력은 지식을 창출한다는 점이며, 권력과 지식은 상호 직접 관여한다는 점이고, 또한 어떤 지식의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권력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권력관계를 상정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지식 관계들’은 권력의 제도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 인식주체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인식주체, 인식대상, 그리고 인식양태는 모두 다 권력-지식의 기본적인 관계와 그것들의 역사적 변화의 결과들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권력에 유용한 지식이든 저항하는 지식이든 하나의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인식주체의 활동이 아니라 권력-지식이다. 권력-지식은 그것을 가로지르고 그것을 구성하며, 가능한 지식의 형태와 영역을 규정하는 과정과 투쟁인 것이다.”한 마디로 말해서, 권력은 진리를 생산하는 기제인 것이다.

생체권력 곧 권력-지식의 본질은 사람과 사물을 대상화하고, 분류하고, 선별하고, 배제한다는 데 있다. 푸코는 근대학문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을 지적한다.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정립된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정신의학을 포함한 현대의학은 사람과 사물을 대상화하고, 분류하고, 선별하고, 배제하는 대표적인 권력-지식이다. 병원(또는 정신병원), 교도소, 군대, 학교는 이러한 권력-지식의 담론에 의하여 사람을 대상화하고, 분류하고, 선별하고, 배제하여 하나의 주체로 생산해내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권력-지식에 의거한 치료, 훈련, 학습, 교육의 과정(過程)을 통하여 특정한 규율체계가 피감자들의 몸과 마음에 내면화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규율의 접합점(接合點)으로서 환자, 죄수, 군인, 학생이라는 특정 유형의 집합적 주체성을 제도적으로 창출해낸다.

이 점에서 생체권력은 그 사회적 본질에 있어서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이기도 하다. 규율권력은, 주체에게 일련의 제도화된 훈련과 학습을 강제하여, 행동준칙(codes of conduct)을 체화(體化)한 통치심성(govern-mentality) 곧 ‘순종적 신체(docile body)’를 만들어낸다. 요컨대, 푸코가 보여주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방법론적 요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현대사회에서 권력은 지식의 형태‘로서/로써’ 행사되며, 지식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되고 정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과 지식의 결합체는 근·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인력을 구성해낸다. 이 점에서 우리 현대인 모두는 권력-지식이 생산해낸 ‘담론적 구성물로서의 주체(subjectivity as a discursive construction)’이다.



#### 4. 결론: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사회인식론적 함의

사상사적(思想史的)으로 볼 때, 근대사회는 계몽주의의 산물이다. 계몽주의는 인간에 대한 사상적 계몽을 통해 개인을 지적·윤리적·정치적 주체로서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확산과 사회 및 역사의 진보를 이룩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계몽적 주체의 정립이 이성(logos)의 자기존립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계몽주의에 있어서 이성은 인간의 제일(第一)의 자기존립의 근거로서, 인간과 동물을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과 비정상적인 인간을 구분하는 준거가 된다. 이 점에서 계몽주의 철학은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의 철학이다. 예컨대, 칸트의 비판철학은 이성중심주의와 및 그에 따른 윤리적 주체의 기획을 대표하는, 계몽주의 철학의 총아(寵兒)이다. 칸트는 자율적 도덕성을 갖춘 윤리적 주체만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보았으며, 계몽이란 바로 다른 아닌 자율성(autonomy) 곧 자기-규율적 도덕성(self-disciplinary morality)을 확립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Henrich, 1994).

그러나 계몽적 이성은,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정당화해주는 형이상학적 근거인 신(神)을 대신하여 스스로를 자신의 존립근거로 내세우게 되면서, 타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부정의 논리(logic of negation)’가 된다. 특히 계몽의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이성은 그 본질적인 합리성을 수단의 효율성으로 치환시킨 ‘도구적 이성(instrumental reason)’으로 변질된다(Horkheimer & Adorno, 1995). 근대사회에서 제반 사회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립·정착된 과정은 산업화 곧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과정과 일치한다. 사회제도의 합리화 과정 및 세계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계산가능성과 효율성은 제일의 사회적 기준으로 정립된다. 이러한 계몽적 이성의 부정적 현상 형태인 이성의 도구화는 그 최악의 결과태로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Konzentrationslager Auschwitz)로 귀결된다.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오시비엥침(Oświęcim)에 있다. 오시비엥침의 독일식 발음이 아우슈비츠이다. 잘 알려진 대로, 나치는 2차세계대전에서 여러 곳에 수용소를 세우고 자국과 점령지의 유대인, 집시, 부랑자, 정신병자 등을 수감하여 ‘인종청소’를 자행하였다.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나치 수용소야말로 푸코가 이야기한 ‘감시와 처벌’이 최고로 일상화된, 그리고 ‘권력-지식’과 ‘생체권력’이 최적으로 주체를 분류하고 배제시켜나간 근대적 장소이다. 나치는 이곳에서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을 분류하고, 쓸모 있는 사람의 노동력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끌어내서 이용하며, 쓸모없는 사람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사회적 기획을 수행하였다. ‘도구적 이성’은 나치의 바로 이러한 반인륜적(反人倫的)·반인류적(反人類的) 범죄의 논리와 방법이였다. 폴란드의 오시비엥침에 나치 수용소가 세워진 것 또한 유럽대륙의 동서남북에서 등거리(等距離)로 대략 중앙부에 해당하는 지점이 바로 폴란드의 오시비엥침이었기 때문이다.

계몽에 대한 비판철학으로서 후기구조주의 철학은 현대사회의 이성인 도구적 이성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계몽주의의 절대이성을 모태로 하는 도구적 이성은, 주체의 동일화 곧 주체와 대상과의 동일성의 성취를 인식론적 원리로 내세움으로써, 개별자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성과 획일성을 강제하는 전체주의의 논리가 된다. 도구적 이성의 이러한 동일화의 인식원리는 주체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표상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지식관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후기구조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물의 의미는 현대 기호론이 밝히고 있듯이 자명하거나 명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미 구조주의에서는 기의(記意)의 발생이 기표(記表)의 형태와 음가(音價)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었다. 이에 더 나아가 데리다에 이르면, 아예

기호의 의미는 다른 기호들과의 공간적 차이(spatial difference)와 시간적 지연(temporal deferment)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절대적이고 명석판명(明皙判明)한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Garver & Lee: 1994). 이러한 후기구조주의적 인식관점은 일견 지적 허무주의 내지는 불가지론으로 귀착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의 언어적 표상을 실제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실증주의적 인식의 관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탁월한 방편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후기구조주의 철학은 인식론적으로는 실증주의와 현상학의 지식관을 비판하고, 사회이론적으로는 근·현대사회의 합리성과 모더니티를 비판하는 ‘비판적 이성(critical reason)’의 논리와 방법이다. 이 점에서 후기구조주의는 여전히, 이성에 대한 비판으로써 이성 자체의 존립근거를 학적(學的)으로 정초하고자 하는, ‘소크라테스의 후예’이다. 그리고 우리가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논리와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달성하고자 한 바도 바로 이것, 이성의 자기 비판이다.

### 참고문헌

- (1) 김옥동 편(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 (2) 이정우(1999). 『시플라크르의 시대: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서울: 거름.
- (3) Dosse, François. 이봉지·송기정 외(역)(1998). 『구조주의의 역사 I』. 서울: 동문선.
- (4) Dreyfus, H. & Labinow, P. 서우석 역(1989).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울: 나남.
- (5) Foucault, Michel(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Vol.1)*. New York: Penguin Books.
- (6) Foucault, Michel(1991).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Penguin Books.
- (7) Garver, Newton & Lee, Seung-chong(1994). *Derrida & Wittgenstei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8) Henrich, Dieter. Velkley, Richard L. (ed.) (1994). *The Unity of Reason: Essays on Kant's Philosoph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